

OLED 시장 2009년 50억달러 형성

디스플레이뱅크, 2005년보다 7배 성장 ... AM OLED 시장도 급속성장

2009년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이 2005년의 7배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함께 아직 양산화 이전인 대형시장도 2008-09년 본격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디스플레이뱅크 김두경 연구원은 4월14일 디스플레이뱅크 주최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디스플레이 산업 포럼 <OLED 시장 본격 성장은 언제부터인가>에서 <미래의 OLED 시장>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OLED 수요는 2005년 6900만대에서 2009년 4억8400만대로 7배, 금액은 2005년 6억2300만달러에서 2009년 49억3900만달러로 50억달러에 육박하며 8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양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형 부문은 제외하고 집계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PM(수동형) OLED가 2005년 6870만대에서 2009년 2억8600만대로, AM(능동형) OLED는 2005년 50만대에서 2009년 1억98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아직 양산 초기단계인 AM OLED 부문이 향후 급속도로 시장을 장악해나갈 보고 휴대폰용 OLED 시장규모가 2005년 5200만대에서 2009년 2억30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OLED 메이커 수도 2004년 PM 18곳, AM 4곳에서 2006년 PM 24곳, AM 13곳으로 증가해 시장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됐다.

OLED는 화질의 반응속도가 TFT-LCD에 비해 10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로 두께와 무게도 LCD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대형화되면 PDP, LCD의 자리를 충분히 위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19>